

2022 문화다양성 공모지원사업 <다이아프로젝트 : 함께라면, 뭐-든> 심의 총평

2022 문화다양성 공모지원사업 <다이아프로젝트 : 함께라면, 뭐-든>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심사위원들은 문화다양성이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로 점차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눈에 담을 수 있는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심사를 진행하며 이전과는 다르게 이주민이나 장애인을 넘어 영역과 장르적 다양성이 확대되는 단초를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었다.

다만, 장르적 다양성이나 형식적 다양성을 넘어 참여자들의 변화라는 관점을 설계하는 시선이 아쉬운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여전히 참여자들을 대상화 하는 시선을 거두지 못한 프로그램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의 규격화된 프로그램을 벗어나지 못하는 통상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루기도 했고, 사업의 전후과정을 구성하는데 준비부족을 노출한 단체들 역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당사자성이 두드러지는 프로그램들에 후한 평가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밝혀둔다. 당사자의 시선과 구체적인 실험을 바탕으로 한 활동들은 한국사회에서 문화다양성 의제를 확장하는데 뚜렷한 족적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소액규모의 실험이 가능하도록 사업의 신설이나 재편이 있다면 진입의 문턱이 낮아져 더 많은 이들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심사의 형식이나 지표 등에도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반영된 변화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심의위원 안태호 (서명)
심의위원 조원영 (서명)
심의위원 유재원 (서명)